

申光漢의 辭賦文學

— 讚頌·修身類* —

金星洙**

<目次>

I. 머리말	III. 修身
II. 讚頌	IV. 맺음말

<국문 초록>

申光漢은 26편의 辭賦 작품을 남긴 유수의 사부 작가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을 연구한다든지 한국의 사부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절감하였기에 미력하나마 용기를 내어 본 연구를 내놓는다. 당연히 적지 않은 잘못이 있을 것이나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부문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신광한의 작품이 많으므로 한 번에 다 실지 못하고 여기서는 讚頌·修身에 해당하는 8편을 따로 소개하는 것이다.

【주제어】 辭賦, 申光漢, 讚頌, 修身

* 申光漢의 작품 26편을 지면관계상 한꺼번에 발표할 수 없어 이를 3편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는 그의 하나이다. 다른 1편은 失志類로 묶어 『漢字漢文教育』 17집(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에서, 또 다른 1편은 浪漫·追慕類로 묶어 『漢文古典研究』 13집(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에 각각 발표된 바 있으니, 이는 그 완결편이 되는 셈이다. 26편 중의 訴旱賦文은 이미 『漢文古典研究』 9집(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에서 별도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論外로 한다.

** 공주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kimss@kongju.ac.kr

I. 머리말

申光漢은 申叔舟의 손자로 당대의 명문 高靈申氏 가문에서 태어났다. 字는 韓之·時晦, 號는 企齋·駱峰·石仙齋·靑城洞主였고, 諡號는 文簡이었다. 어렸을 때에는 불우하여 失學하고, 壯年에는 당쟁에 밀려 20년 가까이 謫居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데다가 官僚生活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문학적 성과와 열정은 매우 뛰어나 大提學에 이르러 當代의 文壇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특히 辭賦文學에서 이룬 성취는 漢文學史를 통틀어도 굴지의 위치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남긴 사부 작품 26편은 적어도 양적으로는 이를 능가하는 작가가 다섯을 넘지 못할 정도로 뚜렷한 것이었다.

적어도 科擧制가 시행된 이래 사부문학의 창작은 선대 문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詩와 함께 과거시험의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사부 짓기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능통하지 않고서는 과거는 물론 文豪로서 대우받을 수 없었다. 李齊賢·李穡·三唐詩人과 같이 詩人으로, 이른바 漢學四大家와 같이 文章家로 이름을 떨친 이들이 있었듯이, 趙繼韓·趙希逸·金義貞 등과 같이 사부에 전념한 辭賦家들도 있었다. 이로써 보건대 우리 한문학사에서 사부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漢詩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한문학 갈래보다 미미한 형편이다. 사부문학 자신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우리 漢文學史에서 사부는 거의 무시되어 왔고, 작가연구에 있어서도 사부문학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고서야 균형 있는 한문학의 연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사부문학 자신은 물론 균형 있는 漢文學史의 기술을 위해, 바람직한 한문학의 연구를 위해 사부문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런 의미에서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저술과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¹⁾ 참으로 미숙하고 무모한 일들이었으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부문학은 다시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에서 나온 모험이었다. 이제 申光漢의 사부문학을 개략적이거나 살펴봄으로써 그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한다. 사부문학 작가로서의 그의 위치는 우리의 대표적인 사부작가의 반열에 놓을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 徐巨正과 許筠의 사이에 위치한 작가로서 한국사부문학사의 전개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문호를 꼽으라고 하면 崔致遠을 필두로 李奎報·李齊賢·徐巨正·許筠·張維 등을 드는 데 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문집을 통하여 시·산문은 물론 평론에 걸쳐서 두루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사부에까지 뚜렷한 작품을 남겨 그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든 갈래에 있어 두루 능통했다고 할 수 있으니 과연 文豪로 꼽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신광한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본체를 택한 이유이다. 더구나 그의 사부문학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연구도 없었고, 그의 문집이 아직 번역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 연구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면 사정상 여기서는 그의 작품 26편 중 내용상 讚頌과 修身에 해당하는 작품만을 추려서 번역하고, 작품 소개와 함께 그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대상 작품이 많으므로 본격

1) 한국사부에 대한 필자의 연구 일체를 정리하여 『韓國辭賦의 理解』, 국학자료원, 1996; 『辭賦文學研究』,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로 출간했음.

그 밖에 이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鄭澈 關東別曲과 許筠 東征賦를 통해 본 歌辭와 辭賦의 인연관계 고찰」, 『웅진어문학』 4, pp.133-146, 1997; 「許筠의 사부문학」, 『공주대 인문사회과학연구』 13, pp.63-116, 1998; 「李奎報의 사문문학1」, 『한어문교육』 7, pp.43-104, 1999; 「이규보의 사부문학2」, 『한어문교육』 8, pp.157-200, 2000; 「徐巨正의 사부문학1」, 『한어문교육』 9, pp.227-254, 2001; 「서거정의 사부문학2」, 『한어문교육』 10, pp.119-170, 2002; 「李穡의 思辨考」, 『한문고전연구』 7, pp.1-18, 2003; 「申光漢의 訴旱賦文 갈래考」, 『한문고전연구』 9, 2004. 등이 있음.

적인 작품연구라기보다는 개략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그칠 것이다.

작품연구에 있어 먼저 原文을 들고, 이에 대한 對譯을 붙였다.²⁾ 완전한 번역이란 본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詩歌의 성격이 있는 사부의 번역은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詩歌를 直譯하면 작품 자체가 보존되기 어렵고, 意譯을 하면 내용에 충실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부문학의 특성상 典故와 用事가 많아 필자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거칠게나마 번역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적지 않은 잘못이 있으리라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직역을 해서 작품 자체를 잃는 것보다는 의역을 통해서 대략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押韻은 사부의 주요한 형식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데에도 유의하였다. 漢詩와는 달리 辭賦의 압운은 불규칙적이어서 정확한 압운을 가려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본래 사부라는 장르의 개념이나 규정을 명쾌하게 다잡을 수 없다. 사부를 敎述文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 敎述文學이라는 것이 운문·산문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 경계가 광범위하고, 여러 장르에 걸쳐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작품을 사부로 단정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선대 문인들이 문집을 편찬할 때 글의 갈래별로 나누어 편차를 정하였는데 사부는 당연히 사부항목에 모아 놓았다. 그러나 사부문학의 갈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목에 辭나 賦의 표지가 있는 것만을 묶어놓는 정도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후세의 연구자들은 늘 사부항목에만 한정되다보니 어엿한 사부이면서도 제목에 표지가 노출되지 않은 작품들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엉뚱한 항목에 끼어들어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찾아내는 일은 사부문학계에서 말아야 할 큰 부담임은 물론이거니와, 사부의 표지가 전혀 없는 사부작품

2) 原文은 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會 刊)본을 표준으로 하였음.

들을 발굴하여 그것이 사부문학임을 밝히는 일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부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문혀진 사부들을 찾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企齋의 완전한 사부 작품의 하나인 「詆旱魃文」은 제목에 사부의 표지가 없어 엉뚱하게 雜著 항목에 끼어들어가 있는 것을 필자가 찾아내어 그것이 사부임을 입증한 바 있다.³⁾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에 따르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에 소개되는 작품들을 사부로 규정지을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하고 입증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II. 讚頌

대상물에 대한 일방적인 예찬의 내용을 묶어 찬송이라 하였다. 詩歌의 찬송을 응축된 묘사라 한다면, 辭賦의 찬송은 장황하게 반복 부연된 묘사이다. 반복 부연의 묘사는 대상물의 긍정적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겠지만 의도된 과장과 허세가 개입되기 쉬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부의 장르적 특성의 하나가 敷衍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사부의 본질적 성격을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하다.

辭賦는 가장 귀족적이요, 사대부적인 문학이다. 이는 辭賦가 처음부터 관리등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科擧制度가 시작되면서 辭賦가 인재등용의 중요한 관문으로 등장하면서부터 더욱 이러한 지위를 굳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高麗 초기부터 科擧의 주요과목으로 辭賦를 부과하게 되었고, 점차로 時勢나 政權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제도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辭賦는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문학성을 잃어

3) 각주 1) 참조.

가면서 時勢에 따라 뚜렷한 목적문학성을 띠게 되고, 그 중 일부는 制度圈文學으로 변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성향은 아직 性理學이 힘을 발휘하기 전의 高麗朝에서보다 載道文學論이 문단을 휩쓸게 된 朝鮮朝에 이르러 그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館閣文學性이 모든 辭賦文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科擧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대부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싫건 좋건 시대에 부응하는 辭賦를 짓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부문학에서 館閣文學性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制度圈文學의 주요한 내용은 세계에 대한 讚頌·禮讚이게 마련이다. 科擧制度는 儒家社會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인 기반이다. 그리고 관료들이 立身揚名이라는 儒家的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권력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과시함으로써 절대 권력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 가장 유리하고 무난했던 것은 절대 권력의 요구에 답하여 매사에 찬송과 예찬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실제로 「黃金臺賦」는 ‘進士覆試’라 하여 科體賦임을 밝히고 있고, 「喜雨賦」 또한 ‘應製’라 하여 官製文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발전적인 미래상의 제시’라고 한다면 현실에 부합하여 일방적인 찬양이나 일삼는 이러한 문학은 그 본분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讚頌類의 사부에 그 문학적인 평가를 높이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이 儒家인 사대부들은 그들 특유의 긍지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유가적 가치관을 투영시키기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이고 교훈적인 가치를 결부시켜 문학으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작품을 6편을 들어 본다.

氷賦 癸巳夏 擬雲賦作

夏殷仲氣蘊隆 炎風爍火雲烘
 무더운 여름날 땡볕 아래 뜨거운 바람 불고 구름마저 달아오르니
 楚王煩憂 出御蘭宮
 楚王이 더위를 못 이겨 난궁을 나섰다.
 乃命鄭姬拓綺櫺 左屈平右宋玉
 정희에게 명하여 차비를 차리고 重臣인 屈原과 宋玉을 불렀다.
 巨扇無功 雄風不入
 큰 부채질도 소용없고, 시원한 바람마저 불지 않으니
 於是戒凌官薦玉井
 於是戒凌官薦玉井
 얼음직이에 명하여 玉井의 얼음을 올리게 하였다.
 王乃悲夏虫之篤時 晒葉公之受命
 왕이 벌레들이 들끓음을 슬퍼하고, 섭공의 실없음을 웃으며⁴⁾
 進賤於三閭大夫曰
 屈原에게 紙筆을 마련하여 주며 말하기를
 物因時貴 用有所適
 사물은 때에 따라 귀한 것이고 마땅히 그 쓰임이 있는 법,
 願賦茲氷而以濯熱也
 願賦茲氷而以濯熱也
 원컨대 이 얼음에 글을 지어 더위를 씻어 주시오.
 屈原聞命 惶恐周旋 再拜而作曰
 屈原聞命 惶恐周旋 再拜而作曰
 굴원이 명을 받고 서둘러 준비하여 재배하여 짓기를

臣聞氷槩著於喪用 氷鑑備於祭具●
 신이 들건대 “얼음은 상례에 쓰이고 氷庫는 祭禮에 유용하다.
 仲孫垂訓於牛羊 姬朝起敬於羔韭●
 仲孫은 牛羊에서 깨우치고 周朝는 羔韭에서 일어났다.
 周詩以兢兢爲比 月令以冲冲取則●

4) 葉公은 楚 葉縣의 沈諸梁을 말함. 허세를 좋아하여 公을 僭稱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禍를 입었다고 함.

詩經에 戒愼의 뜻으로 비유했고,⁵⁾ 얼음 깨는 노래도 있었다.⁶⁾

冬無則書異於魯史 陰始則示戒於羲易●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아 春秋에 기록되어 있고, 周易에 얼음은 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으니

氷之爲義大矣哉 請陣其略●

크도다, 얼음의 뜻이여! 그 대략을 말하면

若乃陰陽 互一六合●

이는 음양의 이치와 같아서 천지와 하나 되고,

生之始 位于北●

생의 시작이며 오행으로는 북에 자리하고,

流江河 注川瀆●

강하를 질러서 냇물로 흘러들어

初無定形 黑豈其色●

처음에는 형체도 없으니 어찌 검으리오?

寒於自出 乃見素質●

거기에서 寒氣가 나와 그 깨끗한 바탕을 이루도다.

想夫玄冥用事 朔颼騰威 天地閉塞●

생각건대 무릇 우주의 조화는 북풍의 위세로 천지는 막히고,

霰雪雰霏 三江凝而凍咽 七澤汜而坼裂●

눈보라 몰아치니 삼강칠택이 온통 얼어 터진다.

于斯時也 大寒御氣 一陽當月●

이때면 날은 춥고, 冬至에 이르면

天官戒時 太史撰日●

天官이 때를 알리고 史官이 日曆을 보아

三凌同作 萬夫偕鑿●

三月에 凌官⁷⁾이 만인을 동원하여 얼음을 깨 모은다.

始緣江以連陸 竟齊山而侔岳●

강에서도, 땅에서도 산에서도 모으는데

寒颼轟以徹骨 色皓皚以射目●

5) 『詩經』, 「小雅·小旻」, “戰戰兢兢 如臨深水 如履薄冰” 兢兢은 戒愼의 뜻.

6) 『詩經』, 「豳風·七月」, “二之日 鑿氷沖沖” 沖沖은 얼음 깨는 소리.

7) 凌官은 얼음 창고를 관리하는 벼슬.

그 한기는 뼈에 사무치고 흰빛은 눈부시니
 偉聖王之創制 時陰陽以開闢●
 조물주의 위대한 작품이요, 陰陽의 조화로다.
 藏室則璞玉磊砢 薦器則琉璃的皜●
 水庫에 넣으면 옥돌이요, 그릇에 담으면 흰 보석이라.
 至如獻歲發春 陽氣載煦*
 새해 차례에 올리면 벌써 봄이 시작되고 陽氣가 생동하니
 饗人治鑑 膳夫供羞*
 廚房의 보물이요, 요리사의 반김이라.
 始登茲物 用調膏香●
 얼음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나고,
 齋官奉進 左右洋洋●
 祭官이 이를 올리면 祭物이 더욱 풍성해지고
 又若鸞刀細碎 玉碗生液●
 날랜 칼로 얼음을 쪼개면 옥그릇마다 漿液이라.
 眩乎若三世荊山破和璧●
 荊山의 和氏璧이 빛나듯 현란하다.
 亦或水團禦暑 畏景朝暘●
 얼음덩어리는 더위를 식혀주나 햇벌이 두려워.
 煥乎若百二車乘照魏寶●
 거동 행차의 수레가 싣고 가는 보물처럼 빛나고
 至夫玲瓏水精之恣●
 영롱한 물의 결정을 불라치면,
 煌扈白虹之氣● 雕鏤泮釋之巧*
 흰 무지개처럼 빛나고 아로새긴 얼음이 교묘하다.
 冷冽凝沍之意● 焉得力而給諸●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信造物之多戲● 方其敵延風之高臺●
 造化翁의 현사한 솜씨, 바람 부는 시원한 높은 누각에 올리면
 置寒露之玉壺● 几席淨而生淒●
 옥호에 찬 이슬 맺히고, 자리마다 정결하고 숙연한 기운이 감돈다.
 酒醴凍而凝酥● 服葛衣之織絺●

술과 음식이 차고, 시원한 칩배옷 입으니
 釋納扇之輕素● 瞻流星之餘景●
 비단부채 부칠 일 없어 흐르는 별빛을 바라보며
 引縞氣於霜兔● 歌皎窈之遺章●
 흰 달 속의 토끼 찾아 皎月의 옛 노래를 부르도다.
 恐予美之云暮● 粉清質之未味●
 나의 아름다움이 사뭇 슬퍼하며 젊음을 붙잡고자
 襲芳菲之蘭蕙● 瑩襟期之不渝*
 蘭蕙의 아름다움을 본받고, 志操를 다짐하기에
 願若氷於交際●
 얼음에서 배우고자 하노라.”
 鄭姬聞之 斂容悽惋●
 鄭姬가 듣고 슬픈 얼굴을 추스리며
 請廣白雪 思有所贊●
 백설에 이어서 다시 기리기를 청한다.

於是乃起而撰堅氷之歌
 이에 일어나 견빙의 노래를 지어 노래하기를
 歌曰歲旣晏兮執華予
 “세월은 흘러가니 누가 나를 아름답게 하리오?
 雪霏霏兮陰始凝●
 눈은 훑날려서 음기가 서리니
 乃自今兮窈不敢
 내 젊음이 사뭇을 생각하니 어찌지 못하여
 夏之日兮愁炎蒸●
 여름날의 더위를 근심하면서
 又繼而爲明氷之歌
 다시 明氷의 노래를 잇노라.”
 歌曰歌旣成兮酒旣酌●
 노래하기를 “노래를 부르고나니 술은 이미 거나하여
 宛淸楊兮誓皎日●
 수양버들 부여잡고 白日에 맹세하노라.

執子手兮相親*

그대 손을 잡고 가까이 하여

期與子兮同室◎

그대와 살기를 약속하고

援錦衾兮角枕◎

원앙금침에 베개 마련하여 놓고

鋪瑤席兮玉璫◎

보료 금석 옥으로 치장하였건만

子不見鑑上之明水*

그대 明水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寧久躍於朝暉◎

어찌 아침햇살만 그리나니?”

歌卒王乃愀然歎懷 若悲若嘆◎

노래 마치니 왕이 슬픈 생각에 잠기더니 슬픈 듯 탄식하듯

顧謂宋玉 作而爲亂◎

宋玉을 돌아보며 亂을 지었다.

亂曰溫溫之玉 砥礪爭輝◎

“아름다운 옥은 거친 옥돌과 다투고

皎皎者人 讒妬累之◎

결백한 사람은 시기 모함 쌓이니

誰以茲水 表裏澄澈◎

누가 이 얼음처럼 겉과 속을 꿰뚫어 볼까?

形可毀氣不可奪◎

같은 허물 수 있어도 뜻은 빼앗지 못하고

污可滌 白不可涅◎

더러움은 씻어내도 결백은 꺾지 못하노라.

虛明不昧 與生俱生◎

虛와 明을 가려 살아갈지니

純乎無雜 惟聖之清◎

더럽힘 없이 깨끗함은 성인의 맑음이라.

于登于豆 何往不適◎

槃床에 올라 어디든 가지 못하랴?

不嫉終日 明見孔皙◎

해가 지기 전에 聖賢을 만나리니

原始返本 變化無跡◎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그 변화에 자취마저 없네.”

이 작품은 스토리를 갖는 대화체의 敘事賦로 漢賦의 풍격이 있는 본격적인 장편 사부이다. 구조면에서 머리가 并序로 되어있고, 결말도 이 중의 亂詞⁸⁾를 구사하여 탄탄한 삼단구조를 갖추고 있다. 압운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데 매우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敘事賦인만큼 압운에 변화를 주어 탄력 있게 구사하고 있고, 몇 개의 缺韻(*)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 속하는 并序에는 보다시피 일체의 압운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敘事賦에서 압운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작품 중에 다수의 등장인물이 나와 대화체로서 하나의 사건을 전개시키는 수법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구성의 사부는 사부의 문학적 성격과 그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부가 발생적으로 운문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산문화의 과정을 거쳐 산문으로 발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사부는 필연적으로 운문의 성격과 산문의 성격을 아울러 갖추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抒情性·詩歌性이 강한 楚辭系의 사부는 아직 운문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고, 이 작품과 같이 사건전개의 서사성이 짙은 漢賦系의 사부는 산문성이 강한 것이다. 詩歌性이 짙은 屈原의 「九歌」·「九章」과 散文敘事賦의 성향이 강한 司馬相如의 「上林

8) 혹은 亂辭. 亂의 字意는 ‘理’로 ‘정리·마무리·결말을 짓다’라는 뜻임. 음악의 마지막 악절 표지로 사용되기도 함. 辭賦에서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亂曰·歌曰·諷曰·訊曰 등으로 나타나는 동의어로 모두 작품의 결말 표지 역할을 한다. 대개 본문과 다른 字句를 구사하는데 본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韻文詩歌性이 강하다. 拙著, 『辭賦文學研究』,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pp.92-106. 참조.

賦」·「子虛賦」등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운문이 산문화한 서사부인 후자에 접근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 작품은 대상사물을 집중적으로 精密描寫한 이른바 詠物賦로 사부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며 詠物은 대개 찬송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문학적 수사법이다. 얼음의 덕을 다양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부에서 영물부는 단순히 대상물의 찬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가탁의 상징물로서 寓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얼음은 속성상 분명히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결은 허물 수 있어도 뜻은 빼앗지 못하고 더러움은 씻어내도 결백은 꺾지 못하는’ 유가적 이상형인 君子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얼음은 또한 지속적인 향존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때의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작중인물인 鄭姬의 이미지와도 통한다. 얼음과 여인은 한 때를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한시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얼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공을 내세움 없이 조용히 사라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그 변화의 자취마저 감추는, 이른바 功遂身退의 君子德을 지녔다는 점이 더한 자랑거리이다. 이것이 얼음의 덕이며, 마땅히 찬송 받아야 할 군자의 상징적인 이미지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 ‘擬雲賦作’이라고 부기해 두어 역시 模擬作임을 밝히고 있으나 누구의 작품을 모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木賦

- 生於天三 五行之一● 하늘의 陽을 받고 오행의 하나로서
 性克于土 得土而植● 天性으로 土를 딛고 흙에 자리하였으니
 色靑味酸 體曲而直● 색으로는 靑이요, 맛으로는 酸이라. 몸은 굽기도 바르기도 하여
 雖偏於物 惟仁其德● 한낱 물건에 지나지 않으나 어진 덕을 지녔도다.

芸芸芽甲 孰匪爾木◎ 싹이 무성히 자라고 단단한 껍질 가졌으니 이는 바로 나무이라.

薪亦無窮 火亦不極◎ 땀감으로도 무궁하고 불로도 다할 수 없도다.

靈椿誇談 月桂誰覩◎ 허황된 靈椿, 9) 월계수는 누가 보았나?

惟松與栢 獨異樗櫟◎ 오직 소나무, 잣나무는 잡목과는 다르고

椅桐梓漆 用各有適◎椅子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옷나무 나름대로 쓸모 있다.

食實衣葉 上古之樸◎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잎은 옷을 지으니 상고시대의 質樸함이라.

未耜宮室 其利漸博◎ 밭 갈고 김매고 집 지으니 그 쓸모가 커지도다.

剝刻刻削 有萬其作◎ 쪼개고, 자르고, 새기고, 깎아서 갖가지 만들고,

生則俎豆 死則棺槨◎ 살아서는 제사상에, 죽어서는 棺材로 쓰이니

微爾之功 吾其焉托◎ 너의 공이 아니면 내 어디에 의탁하리?

從繩惟貴 綸絲則合◎ 먹줄 따라 귀하게 쓰이고, 絃과 합하여 樂器되네.

寧爲直標 俾人作則◎ 곧은 標의 되고, 사람의 본보기 될지어다.

莫成曲几 徒取辟膠◎ 그릇된 일 하지 말고, 사악한 일 하지 말라.

이 작품은 字句의 형식이 4언구로 일관하고 있어 비교적 단조로운 자구를 구사하고 있다. 구조상 3단 구성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나무의 본질 속성을 말하고, 본문에서 나무의 덕을 구체적으로 찬송하고, 結에서 나무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적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에 비해서 并序도 없고, 의미상 序와 本文의 구분이 분명치 않으며, 결말인 표지도 따로 장치되어 있지 않아 사부로서는 전반적으로 허약한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압운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 역시 나무를 정밀 묘사한 詠物賦이다. 당연히 앞에서 본 「氷賦」와 같이 이 작품도 단순히 나무를 예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假託의 의도가 있다. 그러한 의도가 ‘곧은 표적되고 사람의 본보기 될지어다. 그릇된 일 하지 말고 사악한 일 하지 말라.’에서 나타나 있다. 이것

9) 팔천 년을 봄으로, 팔천 년을 가을로 삼아 산다는 전설상의 神木.

이 결말인 것으로 보아 작자의 의도가 집약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당부는 실제의 나무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것도 ‘표적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君子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결국 ‘군자에 대한 찬송’이라 해도 좋다. 결말을 군자가 되기 위한 다짐으로 보면 이 작품은 修身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대상에 대한 찬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黃金臺賦¹⁰⁾ 進士覆試

伊茲臺之權輿兮 自照昭之求賢●

이 황금대의 권위는 燕 昭王이 賢士를 찾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니

當七雄之角立兮 亂相尋於戈鋌●

戰國七雄이 팽팽히 맞섰을 때 물고 물리는 戰亂이 끊이지 않았다.

紛既莫能以相向 弱之肉兮強之食●

서로가 맞서 믿지 못하였고, 弱肉強食이 자행되었다.

噫召伯之疆域兮 奄見夷於強國●

아, 召公이 처음 燕에 책봉되었을 때 주변 강국에 시달림 받았으니

在庸君猶不忍其恥 況昭王之明哲●

어리석은 군주라도 그 치욕을 견디기 어려웠거늘 하물며 昭王의 명철함에 있어서랴

方立朝於草昧 慮未遑其所先●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將養賢而致士兮 雪前冤於重泉●

志士를 모으고 賢士를 길러 黃泉까지 뺨은 前怨을 풀고자 했다.

國無人其知我志兮 感隗始之良策●

나라 안에 그 뜻을 아는 이 없을 때 郭隗¹¹⁾를 기꺼이 등용하여

10) 燕 昭王이 천하의 인재를 부르기 위해 세웠다는 건물. 그래서 招賢臺라고도 하였다. 후세에 소왕의 뜻을 받들어 증축을 하였다. 黃金夕照는 燕京의 八景으로 유명해짐.

11) 죽은 말 뼈를 오백 금으로 샀다는 고사를 남긴 인물. 소왕이 郭隗를 등용하자 과연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와 燕은 齊에 雪冤할 수 있었다.

經營禮賢之高臺 撰良辰與吉日◎

吉일을 잡아 禮를 다하여 높은 누각을 세웠으니

奄一朝而轟轟兮 聳英雄之耳目◎

웅대한 황금대는 천하 영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分白璧之一雙 懸黃金之千鎰◎

값진 보배와 황금 一千鎰을 내걸었으니

非寶其物 樂育其材◎

그 보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재를 기르려는 뜻이 컸으니

嗟爾賢士 盍歸乎來◎

어찌 天下賢士 모여들지 않았으리오?

是用幕府之彥 將相之魁◎

이에 선비들을 등용하고 용사를 장수로 봉하니

爭唾手而奮臂 願與登乎茲臺◎

앞 다투어 팔을 걷고 힘을 뽐내어 황금대에 모여들었다

劇辛去趙而納忠 樂毅自魏而獻說◎

劇辛은 趙로부터 와서 충성을 바치고, 악의는 魏에서 와 계책을 올렸다.

收多士之歸心 順諸侯而作力◎

天下賢士들이 감복하였고, 제후들이 힘을 도와

忍小憤而雪大恥 卒光復乎舊物◎

작은 憤을 참고 큰 恨을 풀었으니 마침내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

嗟呼懸金求士 雖非王者之盛事◎

아, 황금을 걸고 인재를 구함은 비록 王道는 아니었겠지만

所寶惟賢 亦有足道其知義◎

오직 賢良만을 소중히 했으니 분명 의롭다 할 것이다.

周開八百之籙 是賴渭濱之求◎

周代 팔백 년 문물의 성황은 渭水의 姜太公을 얻음에서 시작되었고

齊成一匡之業 實資仲父之謀◎

齊 桓公의 霸業은 실로 管仲의 계책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伊得賢之功 用將與彼而無同◎

어진 선비의 功은 예와 지금이 같지 않으나

然未能正始而圖終 竟不賞其大功◎

대업을 이루지 못함은 필경 큰 공을 밝히지 못했음이라.

臺雖存而事則非 吾爲後王而忡忡●

황금대는 지금도 있으나 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후세 왕들의 명철하지 못함을 슬퍼하노라.

遂爲亂曰有翼其臺 聿穹隆●兮

이에 말하기를 “황금대에 날개 있으면 하늘까지 뻗치리라.

以金爲名 物產之雄●

金으로 이름 하였으니 사물 중에 으뜸이나

非直爲觀美兮 賢士之所從●

그 아름다움만 보지 말고 현사의 功業을 배울지어다.

栢梁銅雀 世各有之●

栢梁臺 銅雀臺 때마다 있었지만

虛築宮闕 夫何爲●兮

헛되이 궁궐만 짓는다면 무슨 소용 있으리오?”

우선 이 작품은 ‘進士覆試’라 명기되어 있어 과거시험의 답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科體辭賦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흔히 科體辭賦는 압운과 관계없이 6言 일변도로 되어있다고 생각 하는 가운데¹²⁾ 이 작품의 형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어도 이 시대까지는 과제사부가 형식적으로 경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오히려 이 작품은 字句의 구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정통적인 사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구성면에서는 并序도 없고, 마땅하게 머리로 잡을 수 있는 마디가 보이지 않아 사부의 일반적인 구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亂詞가 따로 장치되어 있어 결말구조는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압운에도 매우 충실하고 있다.

이 작품의 소재는 중국의 역사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사부에는 이렇게 중국적 소재가 동원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아주 적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

12)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1983, p.306. 참조.

국사부는 한국문학으로서 내용적인 면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중국적 소재는 단순한 남의 나라 歷史回顧物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작자의 당대 治世에 대한 주장과 제안이 들어 있음은 물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금대는 지금도 있으나 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후세 왕들의 명철하지 못함을 슬퍼하노라.’·‘헛되이 궁궐만 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는 바로 유가이념에 투철한 작자의 현실의식이 드러난 곳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科體賦는 制度權力의 뜻에 부합되어야 하는 속성 때문에 저속한 수단을 면키 어려웠던 사정을 생각해보면 이 작품은 작자의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현실비판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가적 가치관에서 인재등용에 심혈을 기울인 정책적인 문물제도에 대한 찬송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자신의 사명감에 대한 다짐이요, 공지의 발로이다. ‘그 아름다움만 보지 말고 賢士의 功業을 배울지어다.’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찬송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유가 사대부의 찬송도 곁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迎賓館賦

黃驪古縣 山水新州●

황려¹³⁾ 옛 고을에 산수도 새로운 곳,

地雄畿甸 邑居上游●

땅으로는 왕도를 받들고, 물로는 뱃길에 이어진다.

回峻址以雄起 煥華構之崢嶸●

굳건한 터전 위에 용틀임하여, 찬란히 솟아오른 영빈관이여.

櫟清心而高峙 軼雲雨於簷楹●

수레를 몰아 淸心樓 높은 곳에 오르니, 처마 기둥에 안개비 감도네.

13) 京畿道 驪州의 古名.

滕閣¹⁴檻外之長江 霞鶩已囿於新銘●

등왕각 난간 밖으로 장강이 흐르고, 동산 노을에 오리 새 등지를 틀고

洞庭御前之廣樂 魚龍猶舞乎餘聲●

동정호에는 가악이 퍼지고, 물고기 뛰노는 소리 이어지네.

山川奇秀而蔥蘢 弓劍(?)¹⁵秘於先陵●¹⁶

산천은 빼어나서 맑고 푸르고, 궁검¹⁷은 선릉에 감추어 있다.

想鸞輿之再臨 起予敬於閑登●

임금 거둥 다시 이어지기를, 삼가 오르며 바라노라.

瞻金額之炳炳 感徵名於迎賓●

빛나는 편액 글씨 바라보노라니 영빈이란 이름 감회가 새로워.

偉聖王之過化 黜異號於前人●

위대할손 성왕의 치세여, 허황된 선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네.¹⁸

唐樓漢閣望仙遺名 寧不於此乎知羞●

자고로 이름 높던 신선들이여, 이곳을 몰랐다면 부끄러워할 일.

雖一字之增減 實萬代之貽謀●

한 글자만 더하고 빼더라도 실로 후세의 감계로세.

矧茲宇之攸處 跨邦畿以開胸●

하물며 영빈관 깊은 곳이 왕도를 지키는 숨통이니

豈徒冠蓋之相望 抑亦梯航之交通●

어찌 벼슬아치나 모이고, 人馬나 드나드는 곳에 그치랴?

伊賓旅之無忘 縱首止之¹⁹善盟●

14) 중국 江西省 新建縣에 있는 누각 이름. 唐 王勃의 滕王閣序를 비롯한 많은 名文을 낳은 絶勝地. 다음에 나오는 長江, 洞庭湖 등도 역시 중국의 지명으로 여주의 자연경관을 美稱한 것임.

15) 문맥으로 보아 글자 한 자가 빠진 것으로 판단됨.

16) 세종대왕의 英陵이 驪州에 있음.

17) 전설에 의하면 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할 때에 활을 떨어뜨렸는데 사람들이 이를 黃帝의 標識로 여겼다고 함. 후에는 하늘의 계시, 君主의 권위, 宗廟의 상징 등으로 쓰여짐.

18) 中宗이 이곳에 이르러 賓仙館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迎賓館이라 바꾸라 명하고 편액을 내렸음. 申光漢, 「驪州迎賓館御額記」, p.472. “上始入館 見其扁額 顧謂侍臣曰 茲非美號也 其改以迎賓……書以黃金 煥如也”

귀하신 손들이여, 잊지 마소. 수지의 맹세를 잊는다면
 奚覬王政之懷綏 足垂憲於九經●
 어찌 나라를 편안히 하여 후세에 垂範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宜嘉客之逍遙 激恩感於中情●
 아름다운 손들이여, 聖恩이 도리에 맞음을 기꺼워할지라.
 增俊彩於繡闈 發逸興於雕甍●
 門마다 꾸밈이 더하고, 아로새긴 용마루 날렵하구나.
 蒼波白鳥 更想圃隱之節操●
 푸른 물결에 백조는 圃隱의 절개요,
 神勒鳴種 可繼禪垣之麗藻●
 신록사의 종소리는 禪垣의 絶唱을 잊는 듯하구나.
 吟范老處遠之有記²⁰⁾ 詠崔子上頭之題詩²¹⁾
 范仲淹의 岳陽樓記를 읊고, 崔灝의 岳陽樓詩를 읊으며
 欲援筆而鋪張兮 又何贅乎一辭●
 붓을 들어 이으려 하나 한 句인들 더할 수 있으랴?

遂作歌曰思樂麗水 爰採其蘋● 이에 노래하기를 麗州江²²⁾ 뱃노래로 마음을 따노라니
 王于出遊 古館惟新● 임금님 거둥하니 옛집 오히려 새로워지네.
 羽毛揚粲 鐘鼓殷麟● 깃발은 나부끼고 음악소리 은은히 이어진다.
 施仁鰥寡 致孝鬼神● 외로운 백성 보살피고 조상 神命 받들고
 登髦拔俊 抑異扶眞● 인재를 발탁하여 邪術 누르고 진리를 높이도다.
 旅行平平 農服畇畇● 거둥이 무사하니 농사도 순조로워.
 江山增色 魚鳥涵仁● 천지는 생기를 더하고 만물에 덕이 미치도다.
 崑嶠茲館 萬古長春● 높을시고 영빈관이여, 만고에 빛나도다.

19) 중국 春秋시대의 衛 地名. 僖公이 長子 계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首止에 諸侯들을 모으고 長子繼承의 서약을 하게 하였다. 인륜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은 역사적 事例.
 20) 范老는 宋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范仲淹을 일컫음. 洞庭湖에 있는 岳陽樓에 「岳陽樓記」를 남겼는데, 그 중 “先天下憂而憂 後天下樂而樂”이 名句로 알려짐.
 21) 崔子는 唐의 시인 崔顥를 일컫음. 湖北省 黃鶴樓에서 시를 읊은 것이 「黃鶴樓」詩이다.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天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22) 麗水는 중국의 경관 좋은 지명. 여기서는 驪州에 있는 한강을 말함.

자구 형식은 주로 四六駢儷句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歌曰’이하의 4언으로 되어 본문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것이 결말임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亂詞의 일반적인 기능인 작품 전체의 총괄로서 난사 특유의 음악성을 표지하는 것이다. 구성으로 보아서 ‘弓劍秘於先陵’까지를 영빈관의 배경설정으로 작품의 머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고, ‘遂作歌曰’이하는 결말구조로 잡아서 사부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압운도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 整齊美를 나타내고 있다.

企齋는 당쟁의 와중에서 경기도 여주에서 17년간 謫居하였던 관계로 이곳은 그의 문학과 관련이 깊다. 「春遊神勒寺」를 비롯한 漢詩가 수십 편을 헤아리고, 「迎賓館賦」 외에도 이와 관련이 깊은 「驪州迎賓館御額記」·「迎賓館五律 并序」²³⁾가 있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비록 지금은 영빈관의 모습을 볼 수 없으나 당시에는 客館은 물론 외국의 사절이 서울에 입성하기 전에 묵었던 곳으로 생각된다. 건물 하나를 정밀 묘사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詠物賦라 할 수 있겠으나 대상 하나를 단순히 묘사한 데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배경과 풍경·역사적

23) 申光漢, 「驪州迎賓館御額記」, p.472. “嘉靖七年戊子冬十月……如海東諸國凡有使 必由是達于京師……幸驪陽 齋宿青心樓 躬致禮于英陵 耄艾觀瞻 蹈舞咨嗟……顧謂侍臣曰茲非美號也 其改以迎賓……書以黃金 煥如也……乃黜賓仙之號 易以迎賓 似以譏夫漢閣唐樓望仙之非而垂戒後昆 且示國家重賓之意”
申光漢, 「迎賓館五律 并序」. “臣負國厚恩 退居驪地 恒思愆過 雖文墨未敢以自娛 十有一年于茲 一日今牧使韓公叔昌來 謂臣曰往在戊子年冬 我主上殿下親臨茲地 有盛事合於王者五 一曰謁先陵 二曰舉鄉賓 三曰賜民租 四曰黜仙號 五曰重賓禮 王者所任 有茲盛事 而至今且六載 暗無歌詩 使美意鬱湮而不揚 豈非守臣之大闕 邦人之深恥 公會作侍從獨最久 今居州地 親觀盛美 烏得無言 前判書金公安國 亦在茲上 某既屬以記 公宜作歌詩 以補其闕而泄其恥 不亦可乎 臣伏而思之 其言實大有理 身雖廢退 然常切仲淹江湖處遠之憂 霑茲德澤 亦在耄艾歌頌蹈舞之列 則無以爲辭 謹撰近體七言律五詩 以列其事 非敢有所贊揚 但備觀民風者採焉”

인 사실은 물론, 한정되어 있지만 다소의 여정도 곁들였고, 때 대상에 작자의 감상·서정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기행적인 성격도 갖추고 있다. 사부문학에서 紀行辭賦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아 이 작품을 紀行 항목으로 분류 설정할 수도 있겠으나 신광한의 사부 중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더 있지 않고, 본편이 기행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독립시키지는 않고 찬송의 부류로 묶었다. 영빈관의 외양과 그 역사적인 전통, 주변 정경과 풍치는 물론 유가적 治世觀과 태평천화를 찬양한 것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讚頌類 사부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서도 찬송이 과하여 阿諛의 기색을 감출 수 없다. 임금이 손수 영빈관이라 이름하고 편액을 내린 사실을 ‘瞻金額之炳炳’이라 한 것까지는 그만두고서라도 ‘雖一字之增減 實萬代之貽謨’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은 아무래도 진실한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喜雨賦 應製

戊戌之歲 月在六陽●

무술년 정월에

乾坤交泰 慶運其昌●

천지는 편안하고, 만사는 亨通한데

正于出治 右之以文●

政事는 바로 서고, 制度도 순조롭다.

乃進詞臣 將試所聞●

이에 文臣들이 나아가 정사를 논의하니

龍庭鵠列 郁郁芸芸●

縉紳賢士들이 늘어선 위세 당당하다.

于是陽事小愆 旱氣將融●

이때에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가물더니

方需潭之欲降 倏霡雲之從龍●

마침 날이 흐려지고 일시에 용이 상서로운 비구름을 몰아오는데

始萋萋以閣天 俄疏疏而墜地*
 처음엔 구름이 하늘에 모이더니 곧 빗방울이 듣기 시작한다.
 觚稜濕來栖之鳳 螭首霑簪筆之史*
 대궐 용마루엔 봉황이 깃들고, 계단 용머리엔 賢士 모였네.
 望苑柳而增色 顧龍溝而添瀾●
 정원 버들은 푸름을 더해가고, 대궐 언못엔 물결이 인다.
 風度墀而響隱 霏承隅而聲寒●
 상쾌한 바람은 뒷마루를 울리고, 처마 낙숫물 소리 시원하다.
 慶初動於朝著 喜已浮於天顏●
 온 조정에는 상서로움이 일고, 主上얼굴에는 희색이 가득하여
 爰命臣等 乃賦茲喜●
 신들에게 이 기쁨으로 賦를 지으라 하시니
 臣拜稽首 敢揚其美●
 신이 머리 조아려 절하고 감히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리라.

窃惟陰陽之協和 實由上下之同寅●
 음양조화의 이치를 보건대 君臣의 和睦에서 비롯하는 것이니
 靡一事之或愆 釀天地之氤氳●
 매사가 한 치의 어그러짐 없이 천지의 기운을 길러내도다.
 曰雨而雨 曰暘而暘●
 비를 부르면 비가 내리고, 별을 부르면 별이 나니
 民熙物暉 是爲虞唐●
 백성은 기뻐하고 만물은 용약하니 이것이 요순태평시대라.
 臣觀夫茲雨也 聲以至德●
 신이 보건대 이 비의 소리는 지덕이요,
 析以和衷 風雲會合●
 빗줄기는 화충이라. 풍운이 화합하여
 協氣旁通 始於會朝●
 기운을 모아 방통하고, 조정에서 시작하여
 徧于農野 雲崩墜口*
 논밭으로 두루 퍼져 큰 비를 내리니
 龜疇已沒於潦瀉 綠舞原頭●

은 들판을 덮어 綠色의 천지를 만들어
 麥浪交走乎溝塍●
 보리밭 물결은 도랑과 두렁을 넘실거리고
 歌將及於擊壤 頌已成於豐登●
 태평가가 가득하고, 풍년가 온 들판에 드높도다.
 然則茲雨也
 이 비로 말할 것 같으면
 以爲朝庭之喜 則非止於朝庭●
 조정의 기쁨이나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以爲農圃之喜 則奚啻於民生●
 백성의 기쁨이나 어찌 그것에 그치리요?
 舉草木其欣欣 若有賀於昇平●
 모든 초목이 생기를 얻어 태평성대를 찬양하도다.

乃從而歌曰天地著位 二氣時行●
 이에 노래하기를 천지를 바로 하고 음양을 때에 맞추어 배푸나니
 孰主調是 一人有成●
 누가 이를 관장하는가? 한 사람이 이를 이루고
 一人之成 由上下和●
 한 사람이 이를 이루면 위로부터 아래로 上和下睦하느니
 上下既和 一雨滂沱●
 상하가 화합하여 큰 비가 천하를 적시도다.
 一雨滂沱 豈惟足食●
 큰비가 한번 내리면 어찌 배부름에 그치리오?
 歸諸聖主 德與天合●
 그 덕은 주상께로 돌아가니 그 덕은 하늘의 뜻에 맞고,
 德與天合 萬壽無極●
 그 덕이 하늘에 합한다면 영원무궁하리도다.

이 작품의 字句형식은 대체로 4, 6言之 駢儷句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歌曰’이하가 4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서의 「迎賓館賦」와 같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작품구조는 보다시피 3단 구성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길어 다소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압운에 충실하고 있으나 몇 개의 缺韻(*)을 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에서 잦은 일은 아니나 辭賦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결말에서 ‘一人有成’에서부터 ‘一雨滂沱’까지 여섯 구의 끝 자를 연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押韻 이외의 또 다른 의도적이고 세련된 韻致이다.

제목에 ‘應製’라고 부기했는데 이는 이것이 科體賦는 아니라 할지라도 制度權力에 부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들에게 이 기쁨으로 부를 지으라 하시니 신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감히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리라’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진실하고 절실한 감정을 적었다기보다는 時勢에 부합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부문학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요, 동시에 그 문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찬송사부이다. ‘乾坤交泰 慶運其昌 正于出治 右之以文’에서부터 시작하여 ‘德與天合 德與天合 萬壽無疆’까지 시종일관 절대 권력에 대한 찬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목이 「喜雨賦」로 되어 있어 얼핏 비를 대상으로 한 詠物賦로 보일지 모르나 사부에서 늘 그래왔듯이 비는 한낱 假託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 의도는 비를 빙자한 통치자와 儒家的 治世觀에 대한 찬송에 있다. 자연의 현상에 하늘의 의도를 결부시키는 태도는 고대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我田引水로 확대해석하고 牽強附會하는 것은 찬송의 사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부가 적지 않아서 예부터 ‘雕蟲小技’라 하여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고, 심지어는 사부문학 기피현상까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의 「黃金臺賦」가 찬송 가운데에서도 현실에 대한 비판의 정신을 발휘한 것과 비교할 때에 이 작품은 문학적 가치를 같이 논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大牢祀孔子賦 課試居魁

惟吾道之在天地兮 一元氣之磅礴●
 우리 儒道는 우주의 元氣가 融和된 것인데
 自周衰而秦亂 忽中斷之迷惑●
 周가 쇠하고 秦의 暴亂으로 중단의 위기에 처했으니
 焚燒夫子之六經 百家粉其是非●
 공자의 육경을 불태우고 百家가 어지러이 일어났다.
 天下蕩然莫知攸宗 尊孔氏者伊誰●
 천하는 그 근원을 몰랐으니 누가 공자를 받들었으랴?

蒼生積百年之憾兮 初發憤於漢王●
 백성이 오랫동안 미혹에 빠졌을 때에 漢 高祖가 일어났다.
 文不墜而在人 豈謂天道之蒼茫●
 文道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니 어찌 天道가 멀다고만 할까?
 哭素靈於中夜 聚彤雲於白日●
 노인은 백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대낮에 핏빛 구름이 몰려오더니²⁴⁾
 竟假手於異人 復吾道之命脈
 마침내 異人의 힘을 빌려 우리 도는 다시 이어졌다.
 雖云得之於馬上 實規模之宏豁●
 비록 武夫의 몸이었다 하나 그 뜻은 크고 넓었다.
 擁衿旂以過魯 揖天子於髡髻●
 魯를 지나며 예의를 다했으니 그 예가 天子에 미쳤다.
 陳大牢而起敬 見籩豆之有踐●
 祭壇을 크게 열어 예를 다하니 제물마다 융숭했다.
 新天下之耳目 舉千載之曠典●
 천하를 새롭게 하고 천년의 範典을 펼치어

24) 漢 高祖가 밤에 연못에서 큰 뱀을 만나 두 동강이 내고 붕기하였다. 웬 할
 머니 하나가 뱀의 죽음을 듣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 변한 白
 帝의 아들인데 赤帝의 아들이 죽었다 하였다. 素靈은 죽은 뱀의 혼. 高祖의
 創業을 稱頌한 것. 陸機의 「漢高祖功臣頌」에 “彤雲晝醉 素靈夜哭”이라는 구
 절이 있음.

屈至尊於一日 綿國祚於四百◎
 하루아침의恭敬이나 사백 년 영화를 이었도다.
 人心既晦而復明 見天理之不滅◎
 어두웠던 백성을 깨우치고 천리의 엄연함을 보였도다.
 偉吾道之流行 若泉源之在地*
 위대할손 우리 道여! 천지를 적시는 샘물이로다.
 當秦氏之焚坑 亦不塞而不止*
 秦皇의 焚書坑儒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네.
 及高祖之一明 復煥煥乎中天◎
 고조의 명철함이 중천에 빛나도다.
 然不能致斯世於唐虞 惜當時之無賢◎
 그러나 堯舜에 이르지 못함은 당세에 인제가 없어서라.
 徒窃禮樂之糠粃 盍長嘆於叔孫◎
 그저 예악을 훔내 내다 말았으니 어찌 叔孫通²⁵⁾의 탄식이 없었으랴?

重爲亂曰神農虞夏忽焉沒兮 聖遠言湮◎
 다시 이르기를 神農, 堯舜 모두 가고, 성현의 가르침 아득하니
 不有夫子 孰開我後地人◎
 공자 아니었다면 누가 후세를 깨우쳤을까?
 縱有夫子 微高帝吾誰依◎
 비록 공자 있었다 해도 고조 아니었다면 누가 전했으랴?
 猗嗟高帝 其亦聖賢之歸◎也
 위대하다 高帝여! 또한 성현이 아니리오?

비교적 여러 가지 자구가 다양하게 구사되어 자구형식으로 보아 混融型이라 할 만하다. 구조는 ‘亂曰’이란 결말의 표지가 명시되어 있고, 미약하나마 ‘천하는 그 근원을 몰랐으니 누가 공자를 받들었으랴?’까지가 글의 서두 구실을 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압운을 한 가운데에 두 곳에서 缺韻을 하고 있는데 ‘地’와 ‘止’를 通韻으로 보았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를 通韻으로 보았다면 작자가 押韻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5) 漢 건국 초창기에 高祖를 도와 유가의 기반을 다지는데 공헌한 인물.

의도적인 缺韻 처리로 보여진다.

제목에 ‘課試居魁’라 병기하였듯이 이 작품은 개인적인 순수한 정서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制度權力에 부응한 작품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작품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찬송의 성격이 강하다. 우선 儒道의 전통을 찬양하고, 그의 祖宗인 孔子를 기렸으며, 儒道를 계승시키는 데 공헌을 한 漢 高祖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 제목과는 달리 高祖의 찬송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儒道가 아무리 훌륭하고 이를 일으킨 공자의 업적이 크다 해도, 고조가 아니었다면 누가 秦始皇의 폭거를 이기고 儒道를 후세에 전할 수 있었겠는가? 高祖는 ‘노인은 白蛇의 죽음을 슬퍼하고, 대낮에 핏빛 구름이 몰려오더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의 뜻에 의하여 일어난 위인이고, ‘魯를 지나며 예의를 다했으니 그 예가 천자에 미쳤다’와 같이 공자를 예우하여 끊어진 儒道를 이은 장본인인 것이다. 즉 이 작품의 주된 찬송의 대상은 공자라기보다는 공자에게 극진한 공경을 한 漢 고조인 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漢 高祖가 儒家보다는 道家에 편향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작품은 역사적 史實과는 얼마간의 거리가 있어 보인다. 科擧에서 요구하는 찬송이라는 목적에 맞추려니 역사의 왜곡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Ⅲ. 修身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듯이 修己化俗 - 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교화시킴 - 은 儒家의 본질적인 목표요, 실천덕목이다. 儒家들이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였던 당시에 그들이 또한 문인이었던 까닭에 가장 전형적인 사대부문학이었던 사부가 이러한 정신에 부합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修身은 유가적인 鑑戒의 정신을 본질로 한다. 다만 修身은 ‘修己’에 해당하고, 鑑戒는 ‘化俗’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修身을 통하여 사대부의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鑑戒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니 修身은 가장 본질적인 儒家精神 德目이다. 그리고 유가에서 修身의 바탕은 自強不息의 學問鍊磨이니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은 志學의 정신도 같이 나타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작품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한 작품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教訓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작품에 나타난 訓戒가 해석하기 따라서는 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자신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다.

修身의 內面 指向性은 儒家 실천철학을 성리학적인 관념철학에 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夜氣賦」에서 이러한 성향이 짙은데 밤의 이미지를 음양의 근원으로, 우주론의 태생으로 설정한 것은 실천적인 면보다는 관념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여기에는 성리학이 크게 작용한 것인데 이러한 성향의 작품을 道學辭賦로 분류할 만하다. 이들은 지나친 이데올로기 추구로 인간의 진실한 性情과 문학적인 감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夜氣²⁶⁾賦

一氣肇判而成三物 萬類其同性●

元氣가 나뉘어 德·行·禮를 낳았으니 만물의 근원은 한 가지라.

夫人性而本靜 靜乃爲性之正●

사람의 性은 본래 고요한 것이라서 이것이 性을 바르게 한다.

乾道元而主貞 時序春而自冬●

天道는 元亨利貞²⁷⁾하고 봄은 겨울에서 비롯되니

26) 밤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은 번잡한 세상과 격리된 가장 순수하고 靜謐한 시간으로 自己省察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말함. 『孟子』, 「告子上」.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 不遠矣”

27) 易 乾卦之四德 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혹은 元者萬物之始. 亨者萬物之長. 利者萬物之遂. 貞者萬物之成. 즉, 만물이 순조롭게 형통함을 일컬음.

惟元氣之肅穆 物反朴於鴻濛●

元氣는 엄연하고 만물은 우주에 퍼져있다.

雖凝寂而無朕 實胚胎乎其中●

비록 寂然하여 짐작키 어려우나 열매는 그 안에서 배태된다.

夫夜乃一日之冬 豈大小之云異●

밤이란 하루의 겨울이니 어찌 크고 작은 구별이 있으랴?

群動闐寥兮兩間 類未判之太始●

胎動은 아직 천지에 적막하고, 만물은 시작도 구별도 없고

收人事之萬變 混無爲於一暝●

부산한 사람의 일도 멈춰지고 어둠에 묻혀버린다.

湛虛明而不息 但一氣之流行●

맑은 虛明 중에 한 기운 쉬지 않고 운행하느니

根核芽甲之自成 物無心而生生●

뿌리, 씨앗, 싹, 껍질이 스스로 이루어지니 만물은 무심한 가운데 자라난다.

喜怒哀樂之未接 不見人之行庭●

喜怒哀樂이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의 欲情이 일지 않고

放心不求而自斂 善端藹而中萌●

마음을 다지지 않아도 평안하고, 善이 모여 또 다른 善을 낳으며

若火然而泉達 奄闕初之來復●

불타고 가면 샘에 이르듯, 어느새 本性으로 돌아오느니.

能收視而反觀 庶回茲而有得●

사물을 바로 보고 달관할 수 있다면 正觀을 얻어

立一元之大本 致其旋之元吉●

一元的 바탕을 세워 大吉에 돌아 이르느니

戴天履之孰非人兮 何昧蔚而莫察●

하늘 아래 있는 자 다 사람이거늘 어찌 우매에서 헤멜까?

夫豈彼謙而此蓄 聖與愚其無別●

어찌 사람은 부족하고, 막히어 聖과 愚를 구별하지 못하는가?

越一日之云爲 孰非道之所自●

하루의 모든 일이 道에서 비롯되지 않음이 없거늘

憫牯亡之反復 悲宅曠而路棄●

過誤를 반복함이 안타깝고, 험난한 세상에 길 잃음을 슬퍼하노라.

聞鷄鳴之三下 各孜孜之異致●

새벽부터 밤늦도록 사람이 하는 일 모두 달라

彼爲聖人之人兮 我爲愚人之人●

어떤 이는 聖인이 되고, 나는 어리석은 자 되어

撓淳清而自濁 寢遁初而喪眞●

스스로 맑고 깨끗함을 흐리게 하고 天性을 잃어버리는가?

氣決驟而莫御 豈徒掘苗之爲務●

夜氣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 어리석은 짓을 일삼는가?²⁸⁾

夫善安從而生 是氣焉得而守●

무릇 善이란 安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 기운을 어찌하면 얻어 지킬 것인가?

觀牛山之濯濯²⁹⁾ 謂土性之不厚●

혈벗은 牛山을 보고 땅의 척박함을 탓하니

參天地之一身 卒同歸於禽獸●

天 地 人의 하나로써 끝내 짐승과 같아지는가?

曰余生之顛蒙 何夜氣之能養●

내 본래 어리석으니 어찌 夜氣를 기를 것인가?라 하니

隨昏晦而宴息 愧中心之瀆瀆●

어둡고 어리석음에 묻혀 마음이 허황함이 부끄러워라.

常存養於子半 認寂感之無貳●

깊은 밤중에 養性하여 적막의 一理를 깨달아

心勿忘而勿助³⁰⁾ 服孟氏之遺旨*

마음의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맹자의 가르침을 본받아

若浩然之能致 可竝立於天地●

浩然之氣를 길러 천지에 우뚝 서리라.

箴曰至正之氣 匪謂恍惚●

벼리어 말하기를 지극히 바른 氣는 恍惚한 것이 아닌 것이니

28) 宋人이 苗를 뽑아 죽게 했다는 어리석은 행위를 말함. 助長. 『孟子』, 「公孫丑上」.

29) 『孟子』, 「告子上」. “孟子曰 牛山之目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30) 『孟子』, 「公孫丑上」, “心勿忘 勿助長也”

在人爲人 在物爲物◎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고, 사물로서 사물이 되는 법.

同善者性 是曰降衷◎

사람의 좋은 天性인 바, 이것은 天賦의 性稟이니

孰爲聖賢 孰爲愚蒙◎

聖賢이 따로 있으며, 어리석은 자 누구인가?

或消或長 隨養得失◎

소멸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것은 수양에 달린 것인데

云胡自迷 白首汨沒◎

어찌 스스로 미혹하여 늙음에 이르도록 골몰하여

放豚知求 心不之愛◎

돼지는 잃고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은 소중한 줄 모르는가?

如或不悟 請視中夜◎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밤의 이치를 생각하라.

寂然虛室 孰物孰我◎

고요한 이 방에 무엇이 사물이고 무엇이 나인가?

萬事未接 四端不昧◎

萬事가 未發하고, 仁義禮智는 그 안에 있으니

操存於此 制外直內◎

이 밤에 이를 바로 하여 外物을 다스리고 內心을 바로 하여

戒彼牛羊 勿踐萌蘖◎

牛羊을 교훈삼아 근본을 망치지 말지어다.

大哉是氣 於焉自達◎

크도다, 夜氣여! 그 뜻을 스스로 따라

直到克塞 聖賢爲一◎

오직 막힘을 극복하여 聖賢과 같이 하리라.

字句 형식은 6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원래 6言은 논리적이고 思辨的인 내용에 자주 사용되던 형식이다. 역시 3단 구성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천지의 근원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고, 중간에서 밤의 속성을 말하고, 수신의 구체적인 실천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말에서 전체를 정

리하고 있다. 亂詞를 두어 결말임을 표지하고 있고, 그 字句의 형식도 본문과 달리 규칙적 4언을 구사하여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압운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服孟氏之遺旨’에서 缺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부문학 형성기 때부터 유가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부문학에서 유가사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思辨的인 性理學의 성격이 강하다. 정통유학이 실천적인 인간중심의 사고를 한다면 성리학은 관념적인 우주론에서 인간의 性情을 분석하는 성격이 짙다. ‘寂然虛室 孰物孰我’는 다분히 道家的 발상이요, 禪的인 분위기마저 준다. 성리학이 정통유학과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유가 밖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전히 그 본질은 유가를 유지하되 다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니 이 작품에서도 맹자의 性善說과 養性論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元亨利貞이라는 『周易』의 논리가 전개되었듯이 自強不息하는 수양과 刻苦勉勵하는 修身으로 되어있다. 유가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작품은 대개 教化的이고 教條的인 내용으로 되어있기 마련이고, 특히 본편과 같이 이념적인 道論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道學辭賦라 이름 할 수 있다. 도학사부 특유의 教條的인 입장은 철저한 목적문학이 되었고, 이것이 이른바 文以載道라는 유가적 문학관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러한 문학관은 ‘순수한 미적정서의 표현’이라는 문학의 본질과는 상치되는 면이 많고, 따라서 매우 경직된 이념으로 채워져 있어 사부를 메마른 剝製文學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의 문학은 시기적으로 가장 원숙해야 할 여건을 갖고서도 오히려 그 문학적 수준에서 高麗朝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爲善最樂賦 東堂覆試

余不及古之人兮 常煩煩而在憂●
 내 先賢에 미치지 못하여 항상 근심하면서도
 求聲色臭味之悅我 汨東西而周流●
 세상의 헛된 욕심에 분별없이 利慾에 골몰하였으니
 無參也之歌聲 有子夏之癯色●
 曾參의 높은 德은 없고, 子夏의 구차함만 있었더니
 惕覺悟而長嗟 識反身之最樂●
 나의 허물을 깨달아 단식하며 마음의 참 즐거움을 알고자 하노라.

惟天地之一理 在夫人而曰性●
 천지에 변치 않는 진리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性이 있어
 無賢愚其皆善 擴至論於鄒孟●
 賢도 愚도 없이 모두 善한 것이니 鄒의 맹자가 이를 밝혔었다.
 期持蔗而倒啖 企予及乎佳境●
 항상 맛있는 것을 탐하며, 좋은 것만을 도모하나
 然外樂之紛如 夫孰破昏而喚醒●
 外物의 즐거움은 헛된 것, 누가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인가?
 崎嶇奪我之心志 軒冕誘我之耳目●
 아름다운 옷은 나의 본심을 빼앗고, 높은 벼슬자리는 나의 이목을 피어내니
 人皆曰此其爲樂 用大憂以自諱●
 모두들 이를 즐거움으로 삼아 스스로 큰 화를 부르는구나.
 偉東平之有言 實我心之先獲●
 위대한 東平王의 말씀,³¹⁾ 실로 나의 귀감일세.
 旣識路而疾驅 又何病夫如登●
 이미 道를 알았으니 힘써 나아갈 뿐, 어찌 망설이랴?
 追顏子兮陋巷 夢周公兮曲肱●
 顏子의 安貧을 배우고, 周公의 樂道를 따르면
 心不愧而不作 在隱約而逾弘●

31) 東平王은 後漢 光武帝의 八子. 학식과 덕망이 높아 황제가 무엇이 제일 좋은가라고 물으니 爲善最樂이라 대답하였다.

마음에 부끄러움 거리낌 없고, 外物을 적게 보면 內心은 더욱 넓어

人欲無隙之可入 天理皎乎其昭融●

탐욕에 젖은 자는 알 길 없으나 天理는 그 길을 밝게 비추도다.

具萬善於方寸 無反觀而自通●

모든 선을 마음에 갖추면, 스스로 변민이 없어지는 법.

樂有餘於囂囂 憂何苦而慙慙●

즐거움은 만족하는 데에 있는 것, 어찌 연연하여 괴로워 할 것인가?

既睟面而盡背³²⁾ 行無往而不慊●

이미 만족하여 넘치니 매사에 부족함이 없다.

爲孝則孝 爲忠則忠●

효를 행하면 곧 효이고, 충을 행하면 곧 충이다.

仁以及物 義以楷躬●

仁으로 外物을 다스리고, 義를 몸으로 실천하고

軒天地而爲量 立中道而從容●

천지를 헤아리고 중용의 도를 따르리라.

無秦楚之富貴 樂簞瓢之日月●

秦 楚의 부귀 부질없고, 安貧樂道 제일이라.

澄一源之大本 致其施之元吉●

진리의 근본을 밝히고, 그 베풀을 넓히리라.

天下之樂 何者爲最●

천하의 즐거움 무엇이 제일인가?

哀我人斯 衆欲之會●

슬프다, 인간이여! 모든 욕망 품어 안고

樂在一身 心驚四外●

일신의 즐거움에 마음을 외물에 빼앗겨

亦終必亡 迷不知改●

필경 파멸에 빠지면서 끝내 고칠 줄 모르는구나.

曰予志之有獲 矢從事而弗諼●

내 뜻을 세웠으니 매사에 잊지 않으리라.

渾萬善而爲樂 欲辨之兮忘言●

32) 原文에는 粹로 되어있으나 睟로 고침. 『孟子』, 「盡心上」. “睟然見於面 盡於背”

만선을 즐거움으로 삼으니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도다.

6언 중심으로 되어있는 字句형식은 논리적이고 思辨的인 내용과 관계가 있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序에서 작품의 목적을 밝히고 있고,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설명하였고, 結에서 그 다짐을 하고 있어 뚜렷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結에서는 본문과 다른 字句형식을 함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다. 압운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제목에 ‘東堂覆試’라 병기했듯이 이 작품은 科擧用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科擧는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던 것이므로 制度圈에 부응하는 내용과 체제를 갖추어야 했다. 讚頌類에서 官製의 사부가 많았음을 확인한 바 있거니와, 朝鮮代에 儒家의 도리를 전개하는 것 또한 그 주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찬송류의 사부가 사물의 외면묘사와 찬양에 치우쳤다면 여기에서의 작품은 내면적인 성찰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儒家的 辭賦의 본질이 教化·風化인만큼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修身類에서는 지배계층으로서의 백성에 대한 教化論理보다는 자신에 대한 수렴적인 內面省察에 더 가깝다. 그리고 사대부로서의 대외적인 治世의 도리를 말하기보다는 儒道에 의한 自己修養論에 중점을 두고 있다. ‘爲善’은 대외적인 善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善에 대한 의지의 다짐이다. 孟子的 性善說을 표방한 점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儒道論에 입각하고 있지만, 安貧樂道를 추구하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유가도덕의 실천자세로 收斂的인 修身의 태도에 가깝다. ‘中道而從容’은 中庸의 道를 언급한 것인데 ‘중용’이라는 말 자체가 다분히 觀念·思辨的이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가치관이다. ‘내 뜻을 세웠으니 매사에 잊지 않으리라’에서 이러한 내면적인 수신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欲辯之兮忘言’은 주제에 대한 개괄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통상적인 유가적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서 아무래도 道家的인 발상에 가깝다. 동시에 관

넘적이고 사변적인 유가의 道論은 궁극적으로 道家의 사고방식과 거리가 멀지 않은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申光漢의 사부 작품 중 그 주제의식이 讚頌과 修身에 가까운 것을 묶어 고찰하였다. 이 둘은 별개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적 가치관에 바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찬송의 대상은 다양해서 事物禮讚으로는 「氷賦」·「木賦」, 文物制度에는 「迎賓館賦」·「黃金臺賦」, 人物에는 「大牢孔子賦」, 自然現象 禮讚으로는 「喜雨賦」가 있었다. 소재는 이렇게 다양하게 동원되었지만 이것들은 주제를 표상화하기 위한 假託物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작자의 투철한 유가적 가치관을 형상화하는 寓言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소재에 관계없이 이들의 공통된 주제의식은 유가의 도리를 찬양하여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修身에 해당하는 「夜氣賦」·「爲善最樂賦」에서 儒家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엄정한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찬송이 寓言의 수법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자아 성찰적이고 일방적인 직설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경직된 분위기는 사부의 문학적 감동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개인의 감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制度圈의 요구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어졌던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이 신광한의 개인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辭賦 특유의 문학적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학적인 감동이나 審美眼的인 면에서 볼 때 여기에서 다른 작품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유가적인 가치관 자체가 냉철한 현실의식과 흠어짐 없는 理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한 치의 여유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학적 감동이나 심미적 쾌락은 어느

정도의 파격이나 낭만적 태도에서 더 쉽게 얻어진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작품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대개의 사부 작가들은 문학적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지배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형식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사부 특유의 3단 구성에 충실하고 있고, 押韻도 몇 개의 缺韻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볼 때 사부에서 3단구성법과 押韻을 매우 중요한 형식적 특징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다만 缺韻에 있어서는 그것이 작자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押韻에 있어 通韻의 문제에는 시대, 지역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의 사부 작품에서 押韻은 매우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 文獻>

신광한, 『企齋先生集』, 『韓國文集叢刊』 22, 민족문화추진회.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보성문화사, 1983.

金星洙, 「申光漢의 訴早魁文 갈래考」, 『한문고전연구』 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辭賦文學研究』,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Abstract

*Sin gwang han's Sa-bu - a praise. a mourning / Kim Sung Su**

Sin gwang-han is one of the prominent poets using Chinese characters. He wrote 26 Chinese character poems. It is so meaningful to study his literature in the field of Chinese character poetry in Korea. Nevertheless, it is so regretful that there wasn't any study about him. With this reason, I started to study in this part and put out this thesis to the world gathering my courage. I don't think this thesis may make a stroke in this field, but I wish that the Chinese character poetry in Korea would hold the spotlight. He composed so many poems in Chinese characters that I cannot put in his whole works in this thesis but I introduce just 8 masterpieces for a start.

【Key words】 Sin gwanghan, Sabu, A praise, A mourning

투고일 : 10월 20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1월 28일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kimss@kongju.ac.kr